강단시론

원 응 순
〈외대교수 영문학〉

20세기 최고의 시로 불리우는 T.S.엘리어트의 "황무지(The Waste Land)"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볼 때가 온 것이다.

정말 나는 쿠마에라는 곳에서, 내 눈으로 항아리 안에 매달려 있는 한 무녀를 보았는데, 그때 소년들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묻자 그녀는 "나는 죽고 싶다"고 하더이다.

이 글은 "황무지"의 시 제목의 주제를 암시하는 서두의 글이다. 몸이 말라 비틀어져서도 죽지 못하고 항아리 속에 매달리어 간신히 살아가는 쿠마에의 무녀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자라게 하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차라리 우리를 따뜻하게 했거나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감싸고 메마른 구근으로 가냘픈 생명을 키웠으니, 여름은 갑작스레 슈타른버거 호반을 건너 소나비로 덮쳐왔기에, 우리는 회랑에 머물렀다가 햇빛속을 따라 공원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고 한시간동안 이야기를 했다.

"황무지"의 제1부 '죽은 자의 매장'은 바로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어떤 곳에 서 있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4월의 한 복판에 있는 황무지에 서있는 것이다. 꽃피고 산새우는 4월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란 말인가. 해마다 우리의 4월은 생명적이었는가. 기쁨보다는 슬픔과 희망보다는 우울과 절망의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은 비단 필자만의 경서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엘리어트의 "황무지"는 어떤 의미를 지녀는 것일까?

엘리어트의 "황무지"는 5부 433행으로 구성된 장시이다. 난해하기로 이름난 장시의 내용에 비해 주제는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항아리 속의 한 무녀의 상황'으로 여러 비평가들은 '20세기 정신의 불모성'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정신의 불모성 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세계의 사막화 현상'의 드래를 예언하는 사라는 점을 첨가하고자 한다./이 얽힌 뿌리는 무엇이며, 이 자갈더미에서/무슨 가지가 자라난단 말인기? 사람의 아들,/그대는 알기는 커녕 짐작도 못하리라, 그대 아는 것은/오직 부서진 형상들의 퇴적, 거기엔 해가 쬐이고/죽은 나무에는 그늘도 없고, 귀뚜라미의 위안도,/메마른 돌틈엔 물소리도 없다. 다만/이 붉은 바위 아래 그늘이 있을 뿐,/(이 붉은 바위그늘로 들어오라)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황무지이고 미래의 황무지이기도 한 곳이다.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숨설 수 없는 곳이니 우리는 살아있으나 실제로 죽은 자와도 같은 생중사의 군상들인 것이다.

/이 공허한 도시/겨울날 안개속으로/군중들이 런던교 위로 수없이 흘러갔다,/나는 죽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멸망시켰다고는 생각 못했다./

런던은 이미 인간의 도시가 아닌 것이다. 유령의 도시인 것이다. 아니, 런던만이 아니다. 시인 보드레르가 살던 파리 도시도 그랬자 인간들이 들끓 "대낮에도 망령이 통행인의 소매자락을 붙잡는 도시"였다. 우리의 수도 서울은 어떠한가. 죽음의 한장교를 매일 건너다니는 차량의 무리들, 명동과 압구정 거리를 흘러가는 군상들은 어떠한가.

시인은 현대인들이 성적불능의 어부왕(the Fisher King)처럼 생의 의미를 상실한 채 죽음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엘리어트의 다른 시 "나이팅게일에 에워싸인 스위니"라는 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성심의 수도원 가까이에서/나이팅게일이 노래하고 있다/그 새는 옛날 피비린내 나는 숲속에서/아가멤논이 비명을 질렀을 때에도 울었었다/그리고 액체의 물진을 떨어 뜨려/그 때뿐만 능욕의 수의를 더럽혔다./

더욱이 시인은 정신적 불모성과 황폐성의 원인을 성적타락에서 찾으면서 성배전설(the Holy Grail)과 후레이져(J.G.Frazer)의 "황금가지"의 곡물신화에서 인용하고 있다.

고풍의 화로 위에는/청 밖으로 숲경치를 내다보듯/무지한 왕에게 그렇게도 무지하게 욕을 보고 나이팅게일이 된/필로멜라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그림속 나이팅게일의 맑은 목청은/사막을 울리며 여전히 울건만/세상은 여전히 음량스러우니/더러운 귀에는 그저 "쩍, 쩍"하고 들릴 뿐이다./

이와같이 삶도 죽음도 아닌 몽롱한 환각상태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미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것 뿐,/스물은/ 자네가 작년에 정원에 심었던 시체에선 새싹이 트기 시작했는가?/금년에는 꽃이 피어나겠는가?/라고 친구에게 묻는 이야기에서 죽음의 매장만이 있을 뿐 재생의 희망은 정녕 없는 것일까? 아니다. "황무지"의 제2부 "장기 놀이", 제3부 "불의 설교", 제4부 "물의 죽음"을 거쳐 제5부 "천둥이 말한 것"에 이르러 비가 그쳐버린 황폐한 이 황무지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가 있다; 따(주어라), 따아드밤(동정하라), 땀야따(자제하라)인 것이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겠다.

"따,/따야드밤, 열쇠소리를 나는 들었노라."

열쇠소리를 들었노라

공공성 살리는 새 방송법 바란다

특집 방송법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엄 민 형
〈방송개혁국민회의 사무국장〉

사진은 케이블TV 뉴스전문채널인 YTN의 편집국 모습

무분별한 방송정책 견제할 법적장치 미흡
자본의 침해와 정치적 통제 배제되어야

보안법 폐지, 노동악법 개폐 등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과거의 군사독재 잔재를 제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적지 않은 법률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집스럽게 정권에 의해서 개정과 개혁이 거부되고 있는 법률은 역시 '정권유지의 3대 요건'으로 지목되는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방송법(언론관계법)을 꼽을 수 있다. 이중에서 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비교적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이 쉽게 이해되는 것인 반면, 방송법 및 언론관계법은 일반인들이 그 내용과 문제점을 쉽게 경험하기 힘든 것은 물론 내용의 전문성이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악법 및 언론관계악법은 집권 기득권세력이 장당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비밀록이라는 사실이다. 비교적 과거를 기준으로 한 인식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 주로 정치권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의 방송환경을 볼 경우 정치권력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위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위협도는 은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본권력이다.

우리나라의 방송법은 군사독재의 역사성으로 인해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는 쉽지만, 자본권력에 의한 규제와 통제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방송법에 대한 개정요구는 매우 상반된 두가지 방향에서 요구되고 있다. 자본권력을 가진측에서는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자본참여와 독점소유를 요구하고 있고, 방송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은 자본의 침해는 막고 정치적 통제는 배제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 입법부도 아닌 행정부라는 점도 문제점이다.

김영삼 정권은 초기에서부터 '방송법의 비민주적인 부분을 개혁하고, 뉴미디어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급한 방송법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각종 연구위원회를 가동시킨 바 있다. 한마디로 처음은 그럴듯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측에서 유리하게 구성한 연구위원회와 수많은 토론회·공청회의 결과까지 거의 모두가 '정부측과 자본권력에게 불리한 (그러나 시청자와 국민에게는 유리한)'방향으로 결론을 지은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매우 순진무구한 의문은 국민의 복리를 책임진 행정부와 국민간에 왜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해의 갈등이 생기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일이 실행되기에 앞서 법률정비와 국민적 동의가 되어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순은 지켜지지 못한 채, 방송법의 정비도 미룬 채 CATV가 '저질리'졌고 또 위성방송이 '저질리'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가한 바둑판에서도 수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하물며 조단위의 예산과 엄청난 파급효과가 내재된 방송사업이 수순을 무시할 경우 그 결과는 자명하다.

애초에 94년 내에 종기방송발전계획안과 방송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던 정부가 몇번의 연기를 거치고 최근까지 국회에서의 답변에서 4월초에는 분명히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5, 6월 이후로 미루고 나선 것도 명분과 논리와 합리성이 미흡한 정책을 강행하는데 따른 어려움 때문이다.

올모와 반민주적 기도를 알세운 정부와 제할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국회로 인해 결국 피해와 손해를 보는 것은 시청자·국민이고 각제는 한국의 방송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30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주최한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벌써 30년의 역사를 가진 크리스찬 아카데미 대화모임은 주최자 스스로의 주관과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균형잡히고 대표성과 영향력이 있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수렴해 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이미 한국사회에서 정평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감하고 첨예한 갈등이 내재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대안을 생산해 왔다. 따라서 방송체제 개편과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도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도 이러한 기대가 작용한 듯 비생산적인 일회성 토론에 그치지 말고 수렴된 의견을 '구체화'시켜서 시민들의 지지를 구하고 이를 행정부와 입법부에 제기하는 실천적 행동을 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지지재 이후로 방송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 정부와, 과거와는 달리 사전공적적인 방송개혁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간의 회전이 올 가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다.

"통일원년 힘찬 결의"

제8기 서총련 출범식 지상중계

서총련출범식이 지난 13일 5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졌다.

2시로 계획됐던 서총련출범식은 일부 대학의 뒤늦은 도착으로 5시에 시작해 사전마당, 본마당, 서총련의장추대마당, 대동마당으로 나뉘어져 이뤄졌다.

사전마당에서 서울지역 법계열학생회 대표자협의회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박상재군은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은 허구성이 짙으며 진정한 개혁은 민중을 위한 법률서비스체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울동패연합의 공연과 시상식이 있었다.

민족대단결상에 국민대, 민족화해상에 서울시립대, 조국통일상에 한양대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 이후 참석한 모든 인원은 문익환목사 추도의 의미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본마당에서 전농사무처장 강완묵씨는 "쌀수입개방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농정개혁을 위해 전농이 농정 7대과제를 제시했으나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완묵씨의 연대사 발표후 참가자들은 "수입개방 이거내고 조국농업 사수하자"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후 민주노총준비위원회 서울지역본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영대씨, 서울연합상임의장 이수옥씨가 참석해 잇달아 연대사를 발표했다.

한총련의장 정태흥(고려대 총학생회장)군은 "통일의 선봉대는 서총련이 돼야 하며 서총련이 한총련의 문제점을 알장서 고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사파 파동'으로 감옥에 투옥되었던 7기 서총련 의장 김종욱(전 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은 이날 출소해 참석하여 출범식 축하메세지를 전했다.

이후 북부총련의장 제윤경(덕성여대 총학생회장)양, 동총련 의장 이원구(한양대 총학생회장)군, 서남총련 김상기(중앙대 총학생회장)군, 서부총련 신성필(서강대 총학생회장)군으로 이뤄진 중앙상임위원의 결의자리가 마련됐다.

서총련의장 추대마당에서 서총련의장 배정기(경희대 총학생회장)군은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며, 다함께 힘을 모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후 한양종합운동장으로 이동해 대동놀이가 진행됐다.

〈최복영 기자〉